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뉴스초점

여름 폭우로 닭 피해 커

230만수 이상 폐사

금년 여름 집중호우는 우리에게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혔다. 당진, 경기북부, 상주 등 전국을 돌며 수백mm씩 비를 퍼부어 농경지 유실과 가옥 침수, 축사 침수내지 유실로 가축의 수해피해도 많았다. 양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업종별로 피해상황이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조사에 의하면 230만수가 넘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수해의 직접 피해는 육계가 많았고 정전 및 낙뢰로 인한 환기불량 등의 간접 피해는 산란계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해로 인해 양계산물은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닭이(꿩) 급속확산 추세

산란저하 및 질병전파

닭의 피부나 깃털에서 밀짚 색깔로 발견되는 기생충의 일종인 닭이가 주로 산란계에서 심하게 감염현상을 보이고 있다. 체온이 낮은 항문 부위에서 많이 서식하는데 닭이에 감염된 닭은 산란율이 떨어지고 증체율이 낮아져 큰 피해를 나타내는데 심하면 폐사까지 이르게 된다.

일부에서는 닭이가 가금티푸스의 원인균인 살모넬라 갈리나룸을 전파시킨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약한 소독약으로는 퇴치가 어려워 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가금티푸스 발병 급증

백색계 공급 부족 현상

가금티푸스가 여름철을 기해 대대적으로 발

병하여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미치는 가운데 근절 대책이 없어 가금티푸스에 항병력이 높은 백색계의 사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 백색산란계 공급처는 2개소여서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나 공급업체도 채산성을 고려하여 종계를 늘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갈색산란계 병아리 가격이 약세를 보일 때에도 백색계는 강세를 보였다. 현재는 900원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닭 생산성 고습으로 최악

출하량 감소로 가격 상승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금년 여름은 예년과는 달리 장마기간이 길고 폭우가 내리 습도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질병 발병율이 높고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는 등 고온고습의 스트레스로 산란율, 증체가 낮아져 산물 생산이 격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폭우 피해로 침수 및 조기출하의 여파로 육계가격이 상승한 반면 수해지역의 육계는 사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육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기온이 내려가면 생산성이 호전되어 정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마쳐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개정령(안) 및 사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7월 29일로 공고한 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엔 개정되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과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은 배합사료제조공장에서 첨가사용하는 비타민, 아미노산, 효소제, 생균제 등 주문용사료첨가제를 동물약품취급규칙에서 삭제하고 사료관리법에 의거 사용토록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해 배합사료의 원가절감으로 양축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밝혔다.

'98상반기 삼계탕 및 계육수출

총 130여톤으로 1.25배 신장

우리나라의 닭고기 관련 품목의 수출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1~6월) 대비 1.25배가 신장된 129.6톤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약 36만 달러이다.

그러나 금년에는 원저에도 불구하고 삼계탕 수출에 있어서는 지난 해 보다도 약 15%가 감소한 반면 계육은 약 2.7배의 신장을 보여 삼계탕 위주 수출에서 품목의 다양화가 시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삼계탕을 주로 수출하는 업체로는 대상마니커, 하림, 화인코리아이며, 계육은 동방물산, 화인코리아, 정우식품, 금강종합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창계사 낙뢰 피해 속출

번개칠 때는 발전기 가동해야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번개로 인한 낙뢰사고가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창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발전시설이 되어 있으나 번개기 등에 문제가 있어 완전히 단전이 되어야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데 금년에는 주로 계사의 배전반에 낙뢰사고가 발생하여 대형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번개가 칠 때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것이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양계**